



보도자료



(주소) 16614 /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상상캠퍼스 교육1964(2층), (재)경기문화재단 예술본부

(전화) 031-231-0842 (팩스) 031-231-0840

배포일: 2025.10.28. 보도일: 2025.10.29.	쪽수	사진	누리집	자료 문의
경기문화재단-동두천시 <2025 HELLO DDC 서브컬처 페스티벌> 개최	2	2	www.ggcf.kr	부 서: 예술사업팀 연락처: 031-231-0840, 0842 담당: 최기영, 이선규

경기문화재단-동두천시 <2025 HELLO DDC 서브컬처 페스티벌> 개최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정주)과 동두천시(시장 박형덕)은 오는 11월 1일과 11월 2일, 이틀간 동두천시 보산동 외국인 관광특구 내 한미 우호의 광장에서 동두천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2025 HELLO DDC 서브컬처 페스티벌(이하, HELLO DDC)>을 개최한다.

<HELLO DDC>는 2015년 경기문화재단과 동두천시와 공동기획하여 경기북부 대표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음악 축제로 성장해왔다. 동두천시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는 한국 K-POP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밴드음악과 힙합 음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특별한 경기북부의 문화지역이다. 매년 새로운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축제로, 올해는 청년층은 물론 가족 단위의 방문객도 함께 어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연령층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서브컬처·K-콘텐츠" 중심의 복합문화축제를 마련하였다. 동두천에는 그래피티 아트로 대표되는 서브컬처 예술을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공공예술로 확장해 왔기에 더 의미가 있다.

축제 첫날에는 서브컬처 중 하나인 K-POP 커버 댄스 컨테스트를 시작으로 코스프레 특별 공연과 동두천 보산동만이 가질 수 있는 한국 힙합 아티스트 공연으로 애쉬 아일랜드, 영년쓰, 칸, 코웨이&가이가이가 무대를 선보인다. 둘째 날에는 감성 아티스트 공연으로 힙합에서 K-POP으로 확장된 한국음악의 저변을 확인할 수 있는 권진아, 경서, 예린(여자친구), 에버글로우 무대를 선보인다.

'동두천' 도시 발전을 과거, 현재, 미래로 연결하여 도시 정체성을 담은 미디어 파사드 쇼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성장한 동두천이라는 도시를 순차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선보이는 기회 소득 예술인 공연은 양일 내내 즐거운 볼거리를 선사할 것이며, 서브컬처 게임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라그나로크 게임 및 코스프레 체험을 준비하였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동두천 지역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서브컬처의 특별함은 주류와 비주류 문화로 구분할 수 없는 현재 시점의 독창적인 동두천의 문화라는 것을 보여줄 기회이며, 경기북부 대표 축제로 성장한 동두천 HELLO DDC축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



※ 붙임: 2025 HELLO DDC 서브컬처 페스티벌 포스터